

정체불명 종단 난립...잇단 부작용

상당수가 유명 종단·사찰 명칭 도용

불교종단 창립이 사찰 창건만큼이나 빈번해지고 있다. 종정과 주요 소인자 몇 명이 전부인 종단이 있는가 하면, 이에 처음부터 창종 형태로 사찰을 세우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다. 이에 따라 유사 명칭 사용 등 많은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다. 더욱이 새롭게 창립하는 종단을 규제하거나 객관적 검증 장치가 없어 불교를 가장한 사이비 종단도 생겨날 소지를 알고 있다.

현재 불교종단은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관음종, 총화종, 보문종, 총지종 등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25개 종단을 비롯해 200여

종정 등 소임자 몇 명만으로 종단 설립

불교계, 종단 상표등록 등 대책마련 부심

곳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법인으로 등록된 단체를 관리하는 문화관광부가 파악하고 있는 종단은 30여 곳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관음종, 총지종, 보문종, 한국불교법화종, 한국불교법륜종, 일불선교종, 열반종 등 10여 종단이 재

단법인으로 등록돼 있고,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단체를 관리하는 문화관광부가 파악하고 있는 종단은 30여 곳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관음종, 총지종, 보문종, 한국불교법화종, 한국불교법륜종, 일불선교종, 열반종 등 10여 종단이 재

조계종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종단이 한국불교조계종, 해동불교조계종, 세계불교조계종 등 20여곳에 이르고 있다. 또 충북 청주시에 총무원을 두고있는 모종단은 전체 소속 사찰이 6곳으로, 전국 시·도별 1곳에도 미치지 못한다. 게다가 소속 성직자들은 무속행위를 통해 신도들을 끌어모으는 등 불교종단으로 보기 어려울만큼 정체가 모호하다. 그럼에도 이 종단은 '○○불교○○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순수한 불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이같은 현상은 종단을 설립할 경

우 문화체육부에 등록을 해야 했던 불교재산관리법이 87년 폐지된 이후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지난해부터는 문화관광부에서 심사하던 법인 등록 절차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법인 등록이 용이해진 점도 종단 난립의 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와 관련, 불교계에서는 종단 상표등록 등 대응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미 천태종, 관음종, 일불선교종이 상표등록을 마쳤고, 종단협의회는 협의회에 가입하지 않은 종단에 대해 불교종단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지난해 4월 결의하기도 했다. 조계종의 경우 조계종을 표방하는 사찰 가운데 종단에 등록되지 않은 사찰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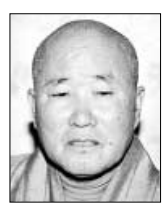
종단협 사무총장 홍파스님은 "정체불명의 종단 난립의 피해는 그대로 불자들에게 돌아간다"며 "종단 관리 기구 설립 등 난립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news.com

종단소식

태고종

경기동부총무원장 범산스님



태고종 경기동부총무원장은 7일 양평 대명콘도에서 사찰 대표자회의를 열고 범산스님(하남 선법사·사진)을 새 총무원장으로 선출했다. 범산 신임 총무원장은 "그동안 경기동부교구가 활동이 미진한 것이 사실이지만, 교구 활성화와 위상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범산스님은 71년 서울 법륜사에서 동산(桐山)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으며, 81년부터 하남 선법사 주지를 맡고 있다.

범식을 개회한다. 이날 기념식은 진각복지발전의 유공자에 대한 공로상을 시상하고 지난 5년 간의 사업에 대한 경과보고, 축하공연, 만찬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아울러 그동안 복지재단이 진행해 온 제반사업 평가와 종사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신행수가 6월까지 공모

진각종 통리원(통리원장 효암)은 경주에 얽힌 신행담과 진각종 스승과의 인연과 관련된 신행수기를 6월 14일까지 공모한다.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1백만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우수상(2명)과 가작(3명)은 각각 50만원과 30만원이 주어진다. 분량은 200자 원고지 30장 내외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팩스나 우편,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02)913-0751-3

천태종

전국청년회 단합법회

천태종 전국청년회(회장 최재규)는 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경주 보문유스호스텔 신라관에서 청년불자 단합법회를 봉행했다. 최재규 회장을 비롯해 천태종 청년불자 1백여명이 참가한 이번 법회는 경주 불교유적 답사, 장기 자랑, 레크리에이션, 관음기도 등 화합과 정진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삼통사 불교회관 기공



서울 망우동 삼통사(주지 용암)는 17일 종정 도용스님, 중앙총회 의장 덕산스님 등 5백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종합불교회관 기공식(사진)을 열었다.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1천여평 규모로 건립되는 삼통사 종합불교회관은 법당과 요사채, 신행단체 사무실, 주차장 등을 갖추고 천태종의 서울 동부지역 포교거점 사찰로 거듭날 예정이다.

일불선교종

일불문도회 임시총회

일불스님 은제자와 직계제자들의 모임인 일불문도회는 28일 오전 11시 서울 신영동 일불선원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서는 종단화합을 위한 대책 등을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02)379-2635

본원종

평화통일기원 천도법회

대한불교본원종(총무원장 대화)은 4월 4일 중구 가급면 중앙탑공장에서 남북 평화통일·국태민안 기원 방생 및 수륙고혼 천도대법회를 봉행한다. 본원종 소속 스님과 불자 1천여명이 동참할 예정이다.

미륵종

한·일 현해탄 수륙대제

사단법인 한국불교미륵종(총무원장 송정)은 4월 3-4일 부산항에서 출발해 일본 후쿠오카항으로 향하는 선박에서 선망 부모와 수륙 고혼을 천도하는 '현해탄 용왕 수륙대제'를 봉행한다. 동해를 건너는 여객선상에서 이뤄지는 수륙대제는 전통 불교의식에 따라 진행된다. 수륙대제에 이어 일본 현지 불교성지도 순례할 예정이다.



윤산태고종 총무원장이 26기 수계자에게 승려증과 도침을 수여하고 있다.

26기 득도수계자 164명 연수

태고종 봉원사에서 수행자세 재점검

태고종(총무원장 윤산)은 12-13일 서울 신촌 봉원사에서 제26기 합동득도 수계자를 대상으로 승려 연수를 실시했다. 164명이 참석한 이

번 연수는 총무원 부원장 자철스님의 '태고종의 나아갈 길' 강연을 시작으로 중앙교육원장 수암스님의 '태고종도의 사명' 동방불교대 교학

처장 법현스님의 '태고종사' 등 태고종도의 사명감과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수행자세의 의지를 재점검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중앙연수원장 수암스님은 "도침과 승려증을 받아 태고종 승려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자리인 만큼 태고종도의 정신을 살려 중생을 위해 복을 짓고 베풀수 있는 수행자가 될 것"을 당부했다. 박봉영 기자

육군 백골부대 OP서

천태종, 연등 점등법회

천태종(총무원장 운덕)은 육군 백골부대 멸공OP 통일원 종각에 연등을 달고 4월 8일 오후 6시30분 점등법회를 봉행한다. 88년부터 매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열리는 OP 점등식은 호국 영령들의 왕생극락과 평화적인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행사로 마련된다.

"초발심 자세로 더욱 수행 정진하길"

미륵종 창종 4돌, 감찰원장 등 임명장

한국불교미륵종(총무원장 송정)은 창종 4주년을 맞아 17일 울산 미륵종 중앙교육원에서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원로위원장 연하스님, 총무원장 송정스님 등 사부대중 2백여명이 참석했다. 총무원장 송정스님은 "종도들은 초발심의 자세로 돌아가 불교 중흥과 종단 발전의 서원을 세워 미륵종을 창종한 뜻을 다시 되새겨보고 더욱 정진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남(견성암), 교육원장 정업스님(태봉사), 총무원 부원장 무계스님(미륵정사) 등에게 이날 임명장을 수여했으며, 총무원 사무총장에 보성스님(약사암), 서울·인천·경기 총무원장에 영탄스님, 부산·경남동부 총무원장에 지현스님을 새로 임명했다.



미륵종은 17일 중앙교육원에서 창립4주년 기념법회를 열었다.

한편 미륵종은 감찰원장 영각스님(용연사), 호법원장 보광스

게시판

인사 ▲동국의료원 △기획관리실 의료정보과장 허기홍 ▲동국대 경주병원 △진료부장 김수성 △교육연구부장 이경섭 △응급진료부장 겸 신경외과 임상과장 이규춘 △건강증진센터소장 김승현 △내과 임상과장 서정일 △산부인과 임상과장 양희생 △소아과 임상과장 김두권 △안과 임상과장 강정훈 △재활의학과 임상과장 오연희 △마취과 임상과장 박은지 △해부병리과 임상과장 장태

정 ▲총무과장 최진식 △설윤식 ▲동국대 포항병원 △정형외과 임상과장 황정수 △산부인과 임상과장 이형종 △흉부외과 임상과장 박성동 ▲총무과장 이성복 ▲건강관리과장 김덕기 ▲동국대 경주한방병원 △진료부장 윤철호 ▲교육연구부장 정승현 ▲동국대 강남한방병원 △진료부장 임성우

구인 ▲안성 감포당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복지사업 경력자 등을 대상으로 생활지도원을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10명, 마감은 총원사까지.(031)671-3677 ▲강릉시장에인복지관은 27일 까지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심리치료를 모집한다.(033)643-1801 ▲서울 송파구 삼전복지관은 26일 학교 사회사업 분야를 담당할 직원을 구한다. 모집인원은 1~2명. (02)421-6077 ▲노인요양원 붓다의집은 생활지도원 2명과 영양사 1명을 모집

하고 있다. 마감은 총원사까지.(053)986-5522 ▲진각종은 31일까지 총무, 재무, 기획, 전산, 관재, 건설 등 분야에서 일할 총무직원을 모집하고 있다.(02)913-0755 ▲서울 안국동 연등국제불교회 관에서는 사무직원을 모집하고 있다. 간단한 영어회화와 컴퓨터 사용 가능자.(02)735-5347 ▲화순 운주사에서 '운주문화공동체'를 주관할 사람을 모집하고 있다. 자격은 사찰 홈페이지 관리가 가능하고 1종 운전면허 보유

자.(061)374-0660

모집 ▲통도사자비원에서는 26일 3개월 과정의 3기 불교호스피스 교육을 개강한다. 교유비는 3만원.(055)381-3999

진화 환 풍화로 편리하게 구독료 지원이제 하세요!
*계좌번호 변경이나 해지를 원하실 때 전화로 알려 주시면 됩니다
신청 및 문의 02)737-0090

봉

태아 <낙태, 유산> 영가 49일 천도재 및 태아 동자상 조성불사

증명 법사 : 봉선사 조실 월운 큰스님

행

저희 구담사에서 매년 유산된 태아 영가의 천도재를 올리고 있습니다.

생명은, 무상속에서 생사를 되풀이 하는 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생의 업력을 받아 삼계 윤회 하는 도중 출생처인 모태에 들어가 인연을 맺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생명 인지 알지 못한채 무명속에서 잃어버린 태아의 영혼을 위해 참회 하는 마음에서 태아 동자상 조성 불사를 하오니 동참 하시어 항상 이 도량에서 참회 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 특히 대학 수험생은 기도 동참 하시길 바랍니다.

※ 정성스럽게 태아 영가를 위해 기도 하는 도량은 구담사가 최초의 성지입니다.

♣ 위패를 쓰는 관계로 미리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 입재일: 양력 4월 6일(음력 3월 5일)
- 회향일: 양력 5월 25일(음력 4월 25일)
- 태아 영가 제사: 입재일 (양력 4월 6일) 3재 (양력 4월 27일) 5재 (양력 5월 11일) 7재 (양력 5월 25일)
- 버스 운행: 입재, 3재, 5재, 7재만 운행
· 장소: 강변역 테크노마트 주차장 (오전 8시)
- 기도 동참비: 49재 기도 동참금 (10만원)
- 위패비: 1위당 5천원 옷: 천 원
- 태아영가 동자상 동참금: 30만원 (동자상 동참하신분은 49재 7회동안 기도비 없고 위패비만 추가됩니다.)
- 준비물: 분유, 사탕, 과자, 초코렛 등

입금 계좌 : 국민은행 (217-01-0339-914) 농협 (2250-56-03370) 예금주: 구담사

대한불교 조계종 구담사

◆ 주소 :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연곡 4리 595번지 전화 : 031-533-2855 팩스 031-532-2441